

# 2010

12월 5일

제18권 49호

## 마데데스

14권 49호 144쪽 고백묵시 104쪽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 칼럼 column

### 목사를 이용하라 ②

목사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자의 질문은 언제나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만약 질문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귀찮아한다면 그는 목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목사들은 신자의 질문을 꺼려한다. 일단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해줄 안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믿음을 들먹인다.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면 곤란한 질문 자체를 차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목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교인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사실이다.

현대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 '아멘'으로 답하면서 마치 목사의 설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때문에 목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목사와의 관계가 꺾여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또한 신자다움이 아니다.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신자라면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탄한 교회생활을 원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목사를 귀찮게 해야 한다. 목사는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질문을 받아 주고 답해줌으로써 신자의 성경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다. 자신의 안목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면 책을 보고 공부해서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안된다면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의 질문을 꺼려한다거나 질문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그는 목사직

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연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발생하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열망으로 목사에게 묻는 것이 있는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성경의 의문을 해소하여 말씀의 세계를 향한 안목을 넓히는 것보다 다른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현대인에게 말씀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현대의 관심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면서 먹이사슬의 높은 자리를 점령하는 것에 더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로 항상 염려하면서 쫓기듯 살아간다.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어서 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겨를도 물을 간절함도 없다. 습관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량을 쫓는 것이 현대인이 하고 있는 일의 전부일 것이다.

교회는 정해진 날에 교회 출입만 잘하고 해야 할 현금만 잘한다면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른들 무슨 상관이었는가? 괜히 질문을 한답시고 목사를 귀찮게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이라면 그는 분명 신자가 아니다.

성경은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신자라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 하고 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이 열망의 해소를 위해 목사를 이용하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고 또 이용하라. 목사는 신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야 할 바른 생각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019-832-9049

## 주일낮 설교



### 천국과 어린이

마 18:1-7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한 말씀이라면 아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상은 승리자로 오신 메시아인데, 십자가 사건은 패배자로 끝나는 메시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제자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죄인이나 흉악범을 이 방법으로 사형시켰고,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 가셔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감을 뜻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름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예수께 묻는 것이 참으로 철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가신 적이 있고, 특히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세를 내는 문제에서는 물고기를 낚아서 얻은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 세를 내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 세를 낸다면 다른 제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유독 베드로의 것만을 챙기시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베드로만을 높이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을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천국관에 문제가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생각 그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온 신앙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왔기에 천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 4:36-38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두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예수님의 노력에 참여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노력을 하셨고, 우리 다만 예수님의 노력으로 맺어진 열매를 아무 노력도 없이 추수하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할 때 어떤 사고방식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천국의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급의 차등을 주장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자신의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의 여하에 따라 각기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급의 차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난 사탄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신자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은혜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든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의 높고 낮음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불의한 자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런데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를 잘 아는 것 같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는 잊은 채 어리석은 길로만 가게 되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4절)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에는 그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또한 모릅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를 모른

채 행동합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어른은 큰 자고 어린 자신들은 낮은 자라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대상일 뿐입니다. 어른을 보면서 ‘누가 더 큰가’라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면서도 이것을 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자기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신자가 결국 깨닫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믿음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죄에 끌려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시기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왜 긍휼과 자비이며 보배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것을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실은 우리에게 높고 낮음의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높고 낮음의 정신으로 바라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도 결국 큰 교회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은 것은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음이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믿음을 높고 낮음과 연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악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르다고 봅니다. 학식과, 재산과, 지위와, 인격과, 행함에 따라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는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새사람은 절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의미의 말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높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접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야 할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 주일 오후 설교



## 전통을 지키라

살후 2:13-17

(6강 11.14일 설교)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항상 감사합니다(1:3, 2:13절). 이처럼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를 초월해야 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겪는 육신의 형편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형편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하는 감사와 다른 점입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미쁘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를 택하신 것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즉 인생을 편히 살거나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비록 육신은 힘들어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의 감사를 좀 더 살펴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는 신자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의 복음으로 그들

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감사를 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통속적인 감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생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속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사도의 감사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감사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무엇을 보고 이 같은 감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신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들에게서 그 같은 감사를 할만한 뭔가가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셨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스데반처럼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대단한 외적 증거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라는 환경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믿음의 외적 증거를 보임으로 사도가 감사한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그 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이나 방언과 같은 것을 믿음의 외적 증거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얇은 시각에 의한 생각일 뿐입니다.

외적인 증거를 증거로 생각하는 우리의 얇은 시각으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도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라는 고통의 형편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앞설까요? 아마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혼란이 섞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에 의한 것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신자가 어떤 핍박과 환난에 놓인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신자는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감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과 환난에서 신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에 있는 신자들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고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구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구원에 감히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구원 받은 자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는 전통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전통에 매여서 전통을 주장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언급한 전통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인간적 전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한 전통은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가르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한 전통은 곧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통이라고 말할까요? 전통은 어떤 공동체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사상이나 의미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떤 형편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믿음에 굳게 선 삶이 되는 것입니다.

## 수요일

### 설교



## 웁으니이까

합 1:12-17

(2장 11.24일 설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으시고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요 5: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선과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취지는 하나님은 마치 죄에 대해 방관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죄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할 수 있는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이 악에게 삼킴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혼란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듯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악에 대해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항변에 살아있는 의식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선지자는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신자는 복을 누려야 하고 이방인은 고통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같은 고통이 주어지는가?’라고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마치 하나님의 부당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외침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를 사망에 이르지 않을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망은 유다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은 이방인이고 따라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생각대로라면 세상은 유다가 복을 받고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는 것이 선지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응을 받으며 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래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저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신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같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실감할 뿐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마음대로 잡아가는 주인 없는 바다의 고기처럼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 버려두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다는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기를 마음껏 잡게 해주는 그물에 분향을 합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선지자는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시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할 뿐, 이방인의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복을 누리고 이방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복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이방인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자라 하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방인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이방인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 합니다. 그 물과 투망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16절). 즉 자신의 소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물이 있어서 소득이 풍성하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물은 단지 자신에게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신자는 귀하게 여기고 섬길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은 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물을 의지하는 우리 역시 이방인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신다면, 우리 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신자로 여깁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부당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가 그물을 떼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소견으로 판단하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진노의 자식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침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곧 멸망의 존재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에게서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악을 보면서 나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침묵하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그냥 내 버려두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온 우주가 알게 될 것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15장
교 독 문	82(빌2장)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500장
성경봉독	마 18:1-7
설교제목	천국과 어린이(115강)
기 도	설 교 짜
찬 송	452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7장
축 도	설 교 짜

다음주기도 : 이영의 장로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482장
기 도	박신자 사모
찬 송	526장
성경봉독	몬 1:1-3
설교제목	그리스도로부터(1강)
기 도	설 교 짜
찬 송	91장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김종건 집사

##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박국 강해(4강)

## 그렇게 살아가자

신윤식



무엇을 버려야 하나  
점차 끝이 보이는 생  
지금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어제의 시간 되돌아보면  
그런대로 가볍게  
잘 살아 왔다 생각했는데  
오늘을 보면 여전히  
허구 속에 무거운 짐  
가득한 것 같아서  
모조리 지우고 싶어진다

내가 지닌 것  
남들이 지니지 못한 것  
자랑과 함께 살아온 것 아닌지

내가 지니지 못한 것  
남들이 많이 지닌 것  
그것이 부러워  
내 인생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끝이 보이는 자리에 섰는데  
이젠 아무것도 미련두지 말자  
그냥 바보처럼 하나씩 지워가며  
부잣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 보다  
'제가 더 무겁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 교회소식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